



# 청년의 가족 '신문'

울컥한 울분에  
세상을 던져 버리려니  
비구름 가득한  
슬프게 우는 푸르른 하늘  
일그러진 얼굴로 던지시 던지는  
청춘이 창공에 없다

태양을 가린 먹구름이  
컴컴한 이불을 위로 삼아 펴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부릴 때도  
차마 떼지는 못하는 창백한 입술로  
청년이 땅에 없다

미래를 살고 싶자 하늘이 지고  
책임을 딛고 싶자 땅이 꺼지고  
헛구호 헛발을  
가르쳐주는 인자한 소식  
희망이 들리는 글자들의 파도에  
닫힌 마음을 연다

한 발치 떨어진 저편에서  
저만치 더 떨어지고 싶었던 끈대  
도무지 귀찮기만 했던  
단잠을 깨우는 툭~ 소리  
청춘처럼 버려진 나뭇가리는 종이들  
아버지 온기 채 가시기 전  
또박또박 글자들에 마음을 뒀다

비가 내려 앉은 글자 사이로  
땅이 숨을 쉬는 제목 사이로  
넘실대는 청춘  
움짤움짤 심장을 뛰게 한다

미래를 머금고 뿌리 내린  
살아 있는 나의 청춘  
새벽마다 희망이 열고 들어와  
그새 성장한 나의 청춘  
아침을 여는 아들에 부푼  
엄마도 '청년의 가족'을 기다린다

하늘에 핀 길  
아름아름 안겨진 꿈  
사이사이 거워거워 땅들에 넘치고  
차가워진 허공에 거름이 되는  
살아 사랑해야 하는 청춘

쿵쿵 거리는 심장을 받아  
거친 숨 호흡으로 포근히 안아  
내일을 열어가는 젊음의 눈  
신문이 깨운다

디지털 액정에 얽은 빗소리  
고운 청춘의 땅을 적시어  
그에  
단 잠을 자게 하는  
단 꿈을 꾸게 하는  
바스락 바스락 소리를 닮았다

스카이데일리는 청년의 가족입니다